

10代 포교 10년 실적 16.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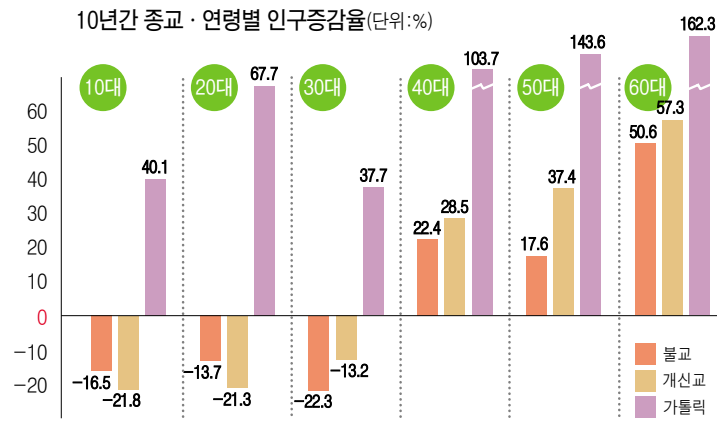
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연령별 불교인구 분석결과... 20代 13.7%, 30代 22.3% 줄어

지난 10년간 종교를 가진 10대 인구의 비율은 1.6%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자는 16.5% 감소했다. 더구나 종교별 구성비에서도 2.3% 줄어들어 충격적 주고 있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8.4%나 증가했다.

1995년 10대 불자의 수는 138만 7839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15만 9470명으로 조사됐다. 10년새 22만 8369명이 줄어 든 것이다.

10년간 진행된 불자 청소년의 감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의 미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6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행정구역/성/연령/종교별 인구'의 분석 결과는 불교계에 청소년 포교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 '성적표'였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 할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번거로운 뿐 아니라 지금 당장 돈 안 되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무관심했던 한국불교 현실을 고스란히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대변화에 따른 계층별 포교전략을 세워 범종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연령별 분석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가톨릭의 40·50·60대 이상 신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는 것이다. 이는 노후를 앞두고 비교적 노년층이 잘 돼 있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장년층 불자 수도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보였지만 가톨릭의 증가폭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노인복지와 장애문화 등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방증이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신도시 포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지난 10년간 불교 신자는 15.6% 증가한데 비해, 가톨릭은 93.4% 증가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불교 신자는 44.6% 증가했지만 가톨릭은 154.8% 증가했다.

관련기사 4면
 남동주 기자 dwnam@buddhapia.com



광역 5·기초 27명 불자 당선

5·31지방선거, 불자 단체장 '선전'

5·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불자 자치단체장은 광역 5명, 기초 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 후보자중 광역 단체장에 박성호(대전시장), 김관용(경북도지사), 김진선(강원도지사), 김태환(제주도지사), 박준영(전남도지사) 불자가 당선됐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안상영(부산시장), 김진선, 박태영(전남도지사), 우근민(제주도지사) 등 4명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던 것과 비

교하면 한명이 더 늘어났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공동대표 박홍훈)의 조사와 본지 자체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에는 16개 광역단체장에 10명, 230개 기초단체장에 67명 등 총 77명의 불자가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이 최종 당선된 것.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전, 충남, 전북, 제주에서는 단 한명의 불자 기초단체장도 나오지 않았다.

박성호 대전시장 당선자는 정부

부시장이 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이번의 주인공이다.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서 계속

보조사상연 월례발표회

17일 부다피아 생중계
 보조사상연연구원(원장 법산)의 6월 월례발표회가 인터넷 불교포털 사이트 부다피아(www.buddhapia.com)를 통해 실황 생중계된다.

6월 17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열리는 월례발표회에서는 불교세계관과 선사상, 심리치료, 禪 카운슬링 등을 중심으로 3명의 소장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한다. 노병철 기자

여름 휴가·방학을 떠올리면 '사찰 수련회'가 생깁니다

다시 여름이다. 때 이른 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에도 역시 사찰 수련회는 보양식보다 좋은 생활의 활력소다.

전국 60여개 사찰에서 6월~8월 일제히 열리는 여름 수련회는 주제별로 다양한 내용이 눈에 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품질'로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여름 수련회. 나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안성맞춤일까?

여름방학이라는 계절의 특성을 반영하듯 올해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가 많다.

대부분의 수련회 사찰은 별도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산 부석사(041-662-3824)와 해남 미항사(061-533-3521)의 '어린이 한문 학당'은 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평창 월정사(033-332-6665)는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마련해 불교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 흥법사(051-508-0345)는 숲속에서 즐기는 명상학교를 준비했으며, 경

주 골굴사(054-744-1689)는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험 수련회도 많다. 나주 불회사(061-337-3440)와 공주 영평사(041-857-1854)는 녹차 만들기과 백련꽃차 만들기 수련회의 주제다. 원주 구룡사(033-732-4800)는 천연 염색과 생태 체험을 주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꾸렸으며, 부산 흥법사는 부산 지역 외국유학생들의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남의 대표적인 문화 코드로

미항사·부석사 어린이한문학당 인기
 범어·마곡·신록사 가족이 함께 참가
 용주사 효행수련회·해인사 특강 다양

자리 잡은 대흥사(061-535-5775)의 새벽술길 체험도 놓치지 아까운 프로그램이다. 밀양 표충사(055-352-1070)는 절이 자리한 재악산 계곡을 탐방하며 물소리에 몸을 맡긴 채 삼매에 드는 '물소리 바람소리'를 운영한다.

이와 같이 다양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대로 수련회의 백미는 역시 '수행'이다.

부산 범어사(051-508-3122)와 김천 직지사(054-436-6084), 김제 금산사(063-548-4441), 순천 송광사(061-755-0107), 예산 수

덕사(041-337-6565)는 한국불교 정통선을 일반인들에게 전한다. 또 나주 불회사는 인도 명상법인 '아니타 명상체원'과 관음대칭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여주 신록사(031-885-2505)와 공주 마곡사(041-841-6226), 부산 범어사는 가족 수련회를 열 계획이며, 화성 용주사(031-234-0040)는 7월 27-8월 6일 모두 3차례에 걸쳐 '효행수련회'를 개최한다. 또 제주 월정사(064-755-3322)와 고흥 제석사(061-835-9594)의 참선단식수련회 요가수련회도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 대표 수련회 사찰인 공주 마곡사와 합천 해인사(055-934-3110)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곡사는 신규 포교사와 교사불자,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만을 위한 수련회를 준비했으며 해인사는 7월 11일~8월 19일 총 6차례에 걸쳐 수련회를 계속한다. 특히 해인총림 유나 원웅 스님의 '선(禪)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법문과 주지 현웅 스님의 '부처님의 생애' 특강, 그리고 강원과 울진 스님들이 맡아 진행하는 '삼법인과 사성제', '계율론' 강의 등은 놓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용주사 포교국장 덕본 스님은 "사찰마다 수련회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많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사찰 여름수련회의 자세한 안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732-9925-7 www.templestay.com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년
 화담정사 조실 혜경 스님

시방세계 9년
 단오날 해인사 소금 묻는 까닭은?

구인사 세터민템플스테이 8면
 불교연극 '지대방' 리뷰 28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운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8호) 용문사 만동불사 영신회 괴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을 소멸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케어, 학업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박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원창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영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김용사 30분소요 용문사 50분소요 부석사 30분소요 청량사 30분소요 봉정사 40분소요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